



▷백제양식을 계승한 무량사 5층석탑(보물 185호)과 극락전(보물 366호)은 백제시대의 단발 단금당식으로 장엄한 조화를 연출한다.



▷통일신라시대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지. 금당터에 있는 석조연꽃대좌와 금당뒤 다른 절에서 찾아보기 힘든 3기의 3층석탑이 성주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돌 바람에도 온화한 백제미소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9월 무량사·성주사지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설잠스님 (매월당 김시습)의 부도 앞에서 스님의 기개를 엿볼수 있는 시를 읽고 있는 답사팀



극락전 소조아미타불 동양최대 자랑 "성주사서 무염선사 '無舌吐論' 들었으면"

(801~881년)가 참견하여 성주사에 주석했던 무염선사가 증명했다고 한다. 임란전 유수의 대가였었던 무량사는 천불전등 30여원을 투입하는 복원봉사를 추진중이다.

주정인 극락전은 천장까지 통층으로 둘러싸인 2층집이다. 아랫층이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윗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목조건축의 정중한 맛을 더해준다. 극락전 안에 모셔진 불상은 본존 아미타불(5.4m)과 양옆의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4.8m)이 있는데 흙으로 만든 소조불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절마당 가운데 있는 5층석탑은 무박한 백제양식을 계승했으나 고려초기의 작품이다. 5.2m의 2층기단위에 7.5m 높이의 5층을 올렸는데 웅장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 옥개석 받침돌을

하나 하나 조립식으로 끼워넣은 탑으로 20여개의 공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그 앞에 있는 석등은 상대석과 하대석에 통풍하게 삼이오른 연꽃이 조각돼 있는 고려초기 석등이다. 선이나 비례가 매우 아름답고 높이 2.5m로 탑과 조화를 이룬다.

무량사 극락전 뒤로 호젓하게 산길을 걸다보면 계곡이 나오고 나무다리를 건너면 나무숲에 싸여있는 산신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되자 불문에 귀의하여 만년을 무량사에서 보내다 임직할 설잠스님(김시습)의 영정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걸려있다.

경내를 나와 일주문앞의 다리를 건너기전에 우측으로 나있는 숲길로 들어서면 설잠스님의 부도가 있는데

당시 유행하던 풍행이 아닌 팔각원당형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테마여행 답사팀은 설잠스님의 종류와 절가를 마음에 새긴 채 성주사지로 향했다.

차로 20분을 달리니 백제가 멸망하자 천만이 사찰에 와서 옮겨 불우(佛宇)를 돌다가 죽었다는 호국도량 성주사지가 나타난다.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는 사적에 불린 80칸 행랑 8백여칸 수각 7칸 고사(庫舍) 50여칸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무염스님의 문도는 2천여명에 이르렀고 쌀씻은 뜨물이 십(十)리나 됐다고 한다.

그 장대한 절이 화재로 송두리째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2만여평의 터에 잡초만 무성하여 이곳을 찾는 세인들에게 무상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사이에 들어서면 기묘하고 화려한 통일신라양식의 오층석탑이 의연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금당터에는 철불이 있었던 석조연꽃대좌가 인상깊다. 백제탑과 석등은 법당앞에 1개씩 일렬로 자리잡은 것이 특이했다. 성주사지는 금당뒤에 다른 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층석탑이 3개나 줄지어 있다. 절터 동쪽 현판에 있는 순박한 석불입상은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미륵으로 여기며 신봉하고 있었다.

또 북쪽에는 남해화상부도비가 전각 안에 들어있는데 신라말 바석으로 최치원이 쓴 사산비문의 하나로 신라대 사상의 흐름을 밝혀주고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성주사지 뒷쪽으로 바라보이는 구룡의 무수한 소나무들은 백제 불교문화의 맛을 더해주고 교학이 융성한 오늘 무염선사의 이심전심 무설보론을 다시 듣고픈 마음이 간절해진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매 기자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은 흙으로 만든 소조 불로 동양 최대 규모

'무량(無量)'이라. 무엇을 셀 수 없다는 말인가. 부처님의 지혜, 생명의 소중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무량사는 바로 극락정토를 뜻한다. 28일 80여명의 답사팀은 무량사 극락전 앞에서 백제불교의 장중한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말았다. 지극한 불심속에 탄생된 백제유물을 둘러보면서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기개넘쳤던 백제인들의 모습을 회상하여 한국인의 기상을 보고 느꼈다. <편집자 주>

장 임병고성생(항토사학자)은 백제문화 화를 이같이 한마디로 집약했다.

무량사(無量寺·주지 의연) 가는 길은 산경문전을 빼놓은 신비로운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다. 무차별의 문(門)인 한칸짜리 일주문을 지나 무량사로 들어가는 길옆에는 돌종루 시냇물이 흐르며 속진반뇌를 맑게 씻어주어 무량한 마음을 일깨워 준다. 이어 3칸의 천왕문에 들어서니 보가드문 5칸의 2층 극락전이 장중한 모습을 드러낸다. 가람배치가 1→3→5칸 차례로 배치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고도 넓다는 것을 일러주는 듯하다.

"만량없는 생명의 산"을 뜻하는 만수산(575m) 기슭에 자리잡은 무량사는 671년 문무왕 11년 창건됐다. 범일국사

임병고 <백제사적연구회장>

전문가 안내

무량사는 신라 범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술적인 조사결과 고려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인조14년경에 중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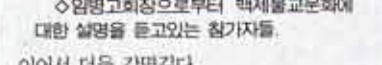
무량사는 삼국시대 특히 백제시대의 단발단금당식 가람배치양식을 원형대로 보존해오는 사찰로 중문은 사천왕문으로 신축하였고 금당후면에 감당지는 반터로 남아있으나 남북에 석등과 석탑 금당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무량사 극락전은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또한 극락전내에 보존되고 있는 법당은 인조 14년에 주조된 것으로 일제시대 일인들에 의해 강탈당해가던 중 해방되자 종의 표면에 양각된 '홍산현북면 만수산 무량사 대웅'이라고 적혀있어 되찾을 수 있었다는 비화가 전한다.

극락전앞 5층석탑은 보물 제185호로 지정된 고려초기의 석탑으로 전체적인 조형수법이 국보 제9호로 정립사지 5층석탑과 비슷해 맞닿아있는 백제탑양식의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다. 탑앞의 석등도 탑과 동시대 작품으로 보물 제233호로 지정돼 있다.

무량사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설잠스님이 마지막 승려생활을 하던 곳

무량사 671년 범일국사 창건 웅장한 5층석탑 '백제양식' 성주사 행랑 800칸 기록



▷임병고회장으로부터 백제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참가자들

이어서 더욱 감명깊다.

만수산 자락에는 무량사가 있고 삼주산자락 계곡에는 성주사지가 2만여평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성주사지가 불탄것은 임진왜란때로 전해오고 있다. 농가의 장독대에서 작은 바석조각이 발견돼 이 절터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백제시대의 오합사터라는 것도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성주사지에는 국보8호 남해화상 백월보탑비를 비롯하여 중일5층석탑 중일3층석탑 중3층석탑 서3층석탑 석조불상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문지 금당지 회당지 3천불전지등 수많은 건물까지 유연해 백제문화권내에 유일한 통일신라시대 석조문화재 전신장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사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신라나 고려로도 비슷한 면은 있었지만 특히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정신과 불교문화의 흥에 고대 강렬한 문화신진국을 만들었고 당시 인접한 신라나 바다 건너 일본을 선도해 주었다. 통일신라나 고려가 불교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곧 백제의 뿌리를 근간으로 자리난 것이다.

큰 기술 PCS 016 세상-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예약가입자중 실가입전환 고객에는 더욱 많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10월 실가입전환시	· 가입비 5만 원 환급 · 10월 한달간 기본료 면제 · 10월 한달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0월 한달간 300분 무료통화(지역전화, 70%리콜은 유료)
11월 실가입전환시	· 가입비 5만 원 전액 면제 · 20개월(11월~12월) 기본료 면제 · 11월 부가서비스료 면제

*프리텔실업카드회원론 각 혜택에 최고 300만원의 무료통화, 단말기 보상보통가입, 가입년도 연회비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가입을 하신 대리점(방문판매원)에서 예약가입을 확인하시고, 실가입통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PC통신, 인터넷, 고객센터, 프리텔실업카드 등을 통하여 예약하신분은 인근 대리점이나 PC통신, 인터넷을 통하여 실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위 할인혜택은 9월 말까지 예약가입을 하신 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약가입기간을 연장합니다.

- 기간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혜택 : 연장된 예약가입기간중 2만원의 예약금만 내시면 실가입시 가입비가 면제되고, 원하시는 번호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예약가입고객은 12월 이후 실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통신프리텔 대리점, 영업소 또는 PC통신(go pcs016)에서 예약가입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신프리텔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